

# ‘강대강’ 여야, 의사일정 올스톱... 정기국회도 ‘식물국회’?

## 새누리, 세월호 ‘3자협의체’ 거부...野, 장외투쟁 돌입

## 국정감사도 무산... 원내지도부 출범후 입법실적 ‘제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에 접어들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파행은 오는 31일까지도 예정된 8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을 거부하며 기존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한 대외투쟁을 선언하고 국회 예결위원장 철야 농성과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당장, 여야가 스스로 입법한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됐다. 지난 6월 후반기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가 합의, 한 차례만 열린 국정감사를 예산 심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8월과 10월에 나눠서 하기로 했던 터였다.

여기에 헌법 규정도 무력화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이미 물 건너 간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12월2일)에 처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올해부터 예산 자동 상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된다면 이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지 111일째인 26일 현재까지 입법 실적은 ‘0’건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법안은 물론 민생 법안도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단원고 3년생의 특별입학법도 묶여 있고 세월호 참사 이전 최대 이슈였던 ‘아동학대 방지법’, ‘송파세 모녀 자살 방지법’과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법안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도 상임위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130석을 보유한 제1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토대로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여당은 여당대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

고 있다. 지난 1년 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8월부터 11월까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

혹 규명을 위한 ‘천막당사’ 장외 투쟁을 벌였다. 그 때도 여야간 정치 공방으로 정기국회 기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투쟁 때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말만 영무세처럼 되풀이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여권 내부에서는 법안 통과 요건을 까다롭게 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원망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 즉 180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여야의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국회는 식물국회, 불임국회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은 날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야, 세월호 유가족 대표 만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유운근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 등 유가족 대표들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조사위에 수사권 쥐도된다”

## 새누리 정미경 의원 타협론 제기

새누리당 내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도 된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당 홍보기획위원장이 정미경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유족들께서 수사권·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건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드리면 적어도 수사와 기소가 된다는 분들로 진상조사위를 채용하고 돌고구를 찾아가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설회에서도 “그분(유족)들의 통곡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과 유가족에게 모두 쥐도 된다”며 “수사권·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주는 것을 사법체계 간간이 흔들린다고 두려워하는데, 진상조사위를 유사 출신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같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경제살리기를 해야 하는데 법이 통과 안 되면 나중에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통곡 소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래서 당 지도부도 돌고구를 찾아낼 수밖에 없고 제가 드린 제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몫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과 유가족들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설회 때 ‘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유족들에게 드려도 괜찮다’고 말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 세월호, 여야 대치 속 고소·고발전도 난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6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문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 때, 유병언의 세모그림 부채 1800억을 탐강해 유병언의 재가를 도와서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철승 변호사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심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맞서 심 의원은 정 변호사를 맞고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미스터리’ 사안도 역시 고발 사건으로 비화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野, 장외투쟁 초강경... 물밑에선 제파갈등도

## 박영선 복잡한 당내 역학구조 돌파 강경 선회 분석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초강경 노선’을 선택했지만 당내 계파 문제가 잠복한 상태에서 향후 투쟁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된 두 번의 여야 합의가 당내 추인을 받지 못한데 이어 ‘3자 협의체 구성’ 제안도 거부되면서 막다른 선택을 했다. 하지만, 내부 노선갈등이 있을 때마다 강경파에 휘둘러 대외 강경투쟁을 택하면서 당내 온건파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실정이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전남의 한 초선 의원은 26일

“이미 방향이 잡힌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소용 없는 것 아니냐”며 “당이 점점 국민과 멀어져 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온건파 의원들끼리 목소리를 내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다수가 강경파여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강·온파 대립의 이면에는 당의 고질적인 계파정치가 어김없이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것도 계파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역학구조 속에서 내

린 ‘현실적 선택지’란 분석이 나온다. 당 일각에서 터져 나온 거취 문제를 돌파,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선 강경 투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친노(친노무현)계가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를 앞세워 박 원내대표를 일부러 흔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당 혁신작업은 물론 내년 전당대회까지 내다본 계파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의 냄새가 난다”고 분석했다.

8일째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의원의 ‘단식정치’를 놓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문’(非 문재인) 진영에서 선명성 행보를 통한 지지층

결집 내지는 당내 구심점 확대의 포석으로 보는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또 박 원내대표가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단식에 돌입, 박 원내대표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하나같이 문 의원의 단식행보를 염호하고 있다. 갈등 분위기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로 보인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석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고, 민병두 의원도 YTN 라디오 ‘신들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을 정치계임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지연 의원은 SBS 라디오 ‘한수전의 전광대’에 출연, “순수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8일 장소: 남구문영회관

올해의 경영평가 최우수금고로 선정된 서양새마을금고의 모습. 상단에는 금고의 모습과 상패, 하단에는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출자배당금 5% (배당금 ⇒ 5.0% (현재 정기예금 금리 1년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사점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방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자금지원  
대출한도는 최고 15억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시설명세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창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하나로대출**  
한도는 높게  
Up&Down  
금리는 낮게

집 담보도  
상가 담보도  
전세보증금 담보도  
자동차 할부금 대출도  
카드론 · 현금서비스도

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정부보증서대출 햇살은 최고 2,000만원

광주원광신협  
공동점 227-4474 금호점 383-4474 풍암점 653-4474

**201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97)	광주교육대학교(107)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4. 9. 5(금) 09:10(특급반) ·금요일 오후반:2014. 9. 5(금) 14:10(초급반) ·토요일 오전반:2014. 9. 6(토) 09:10(중급반)	·월요일 오후반:2014. 9. 1(월) 14:10(초급반) ·월. 목 야간반:2014. 9. 1(월) 19:00(중급반) ·목요일 오전반:2014. 9. 4(목) 09:10(고급반) ·토요일 오후반:2014. 9. 6(토) 14:10(특급반)
모집기간	2014. 8. 1(금)~9. 6(토)	2014. 8. 1(금)~9. 6(토)
수업기간	2014. 9. 5(금)~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4. 9. 1(월)~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원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 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학)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원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 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학)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문 의:062)6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